

# 견관절에 발생한 활막 연골종증의 관절경적 치험례(7년 장기 추시 결과)

이병일, 최형석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병원 정형외과학교실

## 서 론

견관절에 발생한 활막연골종증의 빈도는 매우 드문 것으로 1988년 Richman과 Rose가 관절경적 치료에 대하여 처음으로 보고한 이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보고된바가 없는 실정이다. 저자들은 우측 견관절에 발생한 활막 연골종증 1례를 관절경적 방법으로 치험하고 7년 장기 추시 하여 좋은 결과를 경험하여 이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 하는 바이다.

## 증 례

27세 남자 환자로 뚜렷한 외상의 병력없이 우측 견관절의 동통, 이상음 및 잠김현상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과거력상 중학교때 tennis 선수 생활을 한적이 있으며 그후로 간헐적으로 우측 견관절의 동통이 있었다고 한다. 이학적 검사상 우측 견관절의 관절 운동시 이상음이 있었으며 잠김현상(locking)이 일주일에 3회정도 있었고 불안정성(instability)증상이나 탈구 유발검사에서는 음성소견을 보였다. 내원 당시 시행한 방사선학적 검사상 우측 견관절내 비교적 둥근 모양의 다발성의 석회화 음영이 보여 보다 면밀한 진단을 위하여 CT촬영을 시행하였는데 단순 방사선 검사에서와 같은 균질한 음영의 다발성 석회화

음영의 관절내 유리체를 관찰 하였다. 관절경 소견상 활액막의 증식성병변과 다발성 유리체 소견을 보여 부분적 활막 제거술을 시행하고 직경이 큰 폐쇄관을 이용하여 다발성 유리체를 제거하였다. 술후 특별한 고정기간없이 동통이 없는 범위내에서 능동적 관절운동을 허용하였다. 술후 7년째 외래 추시 시 환자는 주관적으로 상당히 만족한 상태였고 방사선 사진상 제발의 흔적이 없으며 관절운동범위도 정상측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으며 탁발음이나 잠김현상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 결 론

본 교실에서는 비교적 드문 것으로 보고되어지는 우측 견관절에 발생한 활막성 연골종증을 관절경적 방법으로 치료하고 7년 장기 추시하여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었으며 이러한 질환의 치료에 관절경적 시도가 상당히 유용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 색인단어

견관절, 활막 연골종증, 관절경적 치료